

스테이블코인의 도입이 시장에 미칠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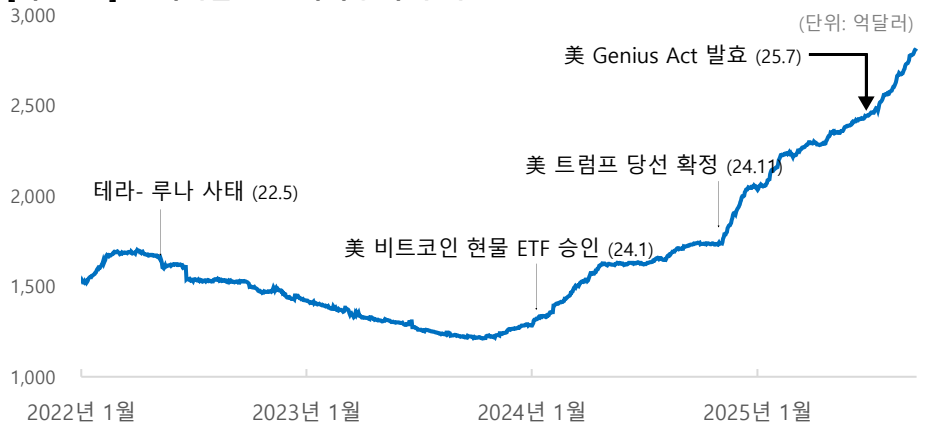
- 미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은
위기 후 신뢰를
회복하며, 테더와
서클이 시장의
85%를 차지하는
핵심 플레이어로
부상

0. 개요 - 스테이블 코인의 부상 배경

2014년 최초의 스테이블코인인 BitUSD가 출시되고, 시가총액 1위인 테더(Tether) 역시 Realcoin이라는 명칭으로 처음 발행되면서 스테이블코인의 태동기가 열렸다. 이후 P2P 금융거래의 부흥과 함께 탈중앙화 금융(DeFi)을 중심으로 성장했으나, 2022년 테라-루나 사태로 신뢰가 붕괴되며 시장은 침체 국면에 들어섰다. 그러나 2024년 초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고 후보 시절부터 친 디지털 자산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운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에 확정되면서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다시금 주목받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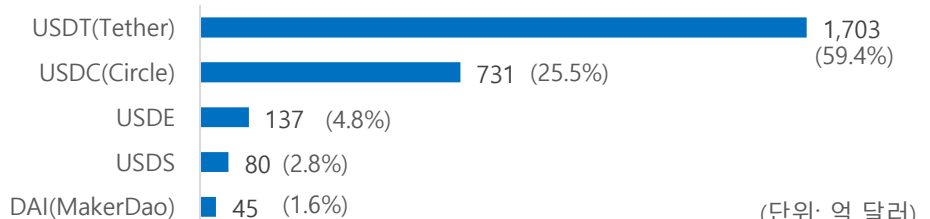
[자료 01]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 추이



출처 : 하나금융연구소

2025년 9월 초 기준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시가총액은 2,864억 달러에 달하며, 이 중 법정화폐 연동 스테이블코인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법정화폐 연동형 스테이블코인은 1단위 발행 시 동일한 가치의 안전자산이나 달러에 페깅(Pegging)하여 발행되며, 이는 2022년 테라·루나 사태를 초래했던 변동성 높은 알고리즘형 스테이블코인과 달리 안정적인 가치 유지를 가능하게 했다. 이러한 구조는 스테이블코인의 신뢰 회복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현재 USDT와 USDC가 전체 시장 시가총액의 약 85%를 차지하고 있다.

[자료 02] 주요 스테이블코인의 시가총액(9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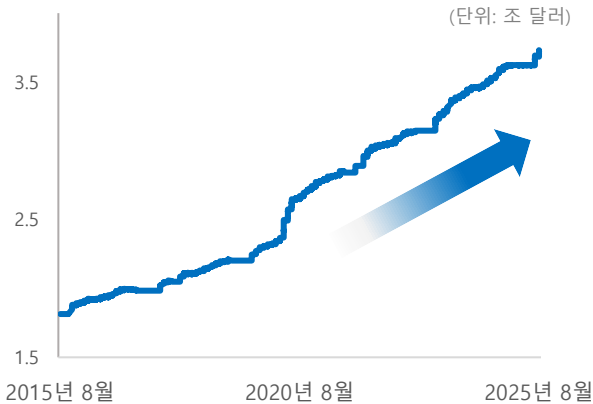
출처 : Coingecko

1. 트럼프는 왜 스테이블코인을 밀고 있는가?

트럼프는 달러 패권 유지와 국채 수요 진작을 위해 스테이블코인을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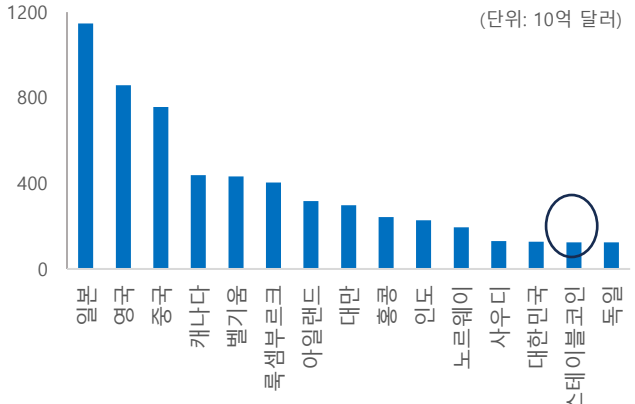
최근 스테이블코인 성장의 가장 큰 요인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드라이브다. 트럼프가 스테이블코인을 적극 지지하는 배경에는 달러 패권 유지와 미국 국채 수요 진작이라는 전략적 목적이 있다. 오랫동안 기축통화국 지위를 누려온 미국은 최근 중국·러시아 등이 달러 의존도를 줄이고자 하는 움직임을 주시해왔고, 이에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의 성장을 달러 패권 강화와 직결시킨 것이다. 또한 역사적으로 누적된 국가부채와 이에 따른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 인하가 필요할 때, 달러 자산에 폐킹된 스테이블코인 수요는 자금 조달을 보완하며 국채 수급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실제로 테더와 서클 보유규모는 글로벌 국가 규모 수준으로 도달한 상태이다. 따라서 스테이블코인은 미국의 경제 안정과 달러 패권 유지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자료 03] 미국 국가부채 현황



출처 : 미국 재무부

[자료 04] 미국채 보유규모



출처 : ARK Investment Management LLC, 2025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했던 디지털 자산 산업 육성 방침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으며, 7월 셋째 주를 '크립토 위크(Crypto Week)'로 지정해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며 제도화 속도를 높였다. 현재 가상자산 3대 법안인 지니어스(Genius) 법안, 클래리티(Clarity) 법안, 반(反)CBDC 법안 중 지니어스 법안은 상원을 통과해 7월 18일 서명식이 진행되었으며, 나머지 두 법안은 하원 통과 이후 상원 논의를 앞두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법적 규제를 명확화했다는 측면에서 해당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촉진할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법안 마련을 계기로 은행권, 핀테크 기업, 유통업체 등이 경쟁적으로 스테이블코인 관련 사업을 발표하고 준비 중이다

[자료 05] 제도화현황

	GENIUS ACT	A-CBDC ACT	CLARITY ACT
진행현황	크립토 위크 이후 정식 법률로 제정	하원 통과, 상원 검토중	하원 통과, 현재 상원에서 심사중
주요 목적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중앙은행 CBDC 발행 제한	가상자산 명확화
내용	발행자에 대한 '1:1' 준비금 의무화, 준비금 자산 허용 범위 명시	연준이 개인 대상 계정 개설/거래 서비스 제공 X, CBDC를 통한 통화정책 수단 사용 금지	SEC(증권거래위원회)대신 CFTC(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를 주요 감독기관으로 지정, 스테이킹 등 블록체인 서비스 규제 영역 명확화

출처 : 미국하원, 재정리

2. 미 국채 시장에 미칠 영향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확대는 단기 국채 수요를 늘려 금리 하락 압력을 유발할 수 있으나, 급격한 금리 변동 시 채권시장과 암호화폐 시장 모두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 존재

GENIUS ACT에 따르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는 법안의 SEC. 4.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에 1:1로 상응하는 가치의 준비금을 유지해야한다. 미국 법정화폐인 달러에 현금으로 보유해 스테이블코인을 달러로 다시 전환하는 수요에도 대응해야 하며, 수익성 확보를 위해 미국 단기채 투자, MMF, REPO 거래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자료 06] GENIUS Act, SEC 4.에 명시된 스테이블코인 준비금 요건

준비금 요건

- 미국의 동전과 화폐(연준 발행 화폐 포함)
- 요구불예금, 언제든지 인출 가능한 은행 예금
- 미국 국채(잔존만기 93일 이하 또는 만기가 93일 이하로 발행된 국채)
- 환매조건부채권(만기 7일 이하이고, 만기 90일 이하의 미국 국채로 담보로된 경우)
- 역환매조건부채권(만기 7일 이하이며, 미국 국채를 담보로 익일 단위로 체결된 것.
- MMF
- 중앙은행 준비금 예치금

출처 : GENIUS act, SEC. 4

이처럼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커지면 단기 국채 수요 확대의 결과로 단기물 중심으로 시장 금리는 하락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또한 장기채 수요에는 직접 수급적 영향이 없으므로 장기채 금리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급증해서 단기 T-bill에 대한 수요가 늘더라도 단기 금리가 기준금리보다 크게 하락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Fed는 공개시장운동을 통해 초단기 금리를 기준금리(FFR) 목표 범위 내로 유지해야하고, 금리 하한은 ON RRP로 관리하기 때문이다.

스테이블코인 준비금에 편입된 미국채 규모가 확대된 상황에서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수급 변동이 채권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의 수요와 공급이 급격히 흔들릴 경우, 채권시장 역시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겪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금리인상 상황의 경우 암호화폐 시장에 부정적이므로 급격한 금리인상 상황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의 현금 전환 수요가 커지거나 일부 MMF와 같이 높아진 금리 상황에 따라 Yield를 수취할 수 있는 시장으로 이동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의 준비금과 MMF의 기초자산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영향은 없겠지만, 매수주체가 빠르게 바뀌는 과정에서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 할 것이다.금리 인하 상황의 경우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이자수익이 약화되어 발행사의 신뢰도가 하락하고, 코인런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자료 07] 씨클의 수익 변동 예상 시나리오

금리변동	Reserve income 변동	Distribution & Transaction costs 변동
+200bp	+\$12.35억	+\$6.31억
+100bp	+\$6.18억	+\$3.15억
-100bp	-\$6.16억	-\$3.15억
-200bp	-\$12.35억	-\$6.31억

출처 : CRCL

3.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현주소

원
스
테
이
블
코
인
의
준
비
금
은
통
안
채
활
용
이
유
력
하
나,
현
재
91
일
물
중
심
구
조
는
한
계
가
있
어
다
양
한
만
기
발
행
을
통
한
보
완
이
필
요

미국의 친디지털 자산 정책 기조에 발맞춰 국내에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거의 없다. 다만 현재 핵심 쟁점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으로 할 것인지 비은행 기관까지 허용할 것인지, 둘째, 준비금을 어떤 자산으로 구성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지난 8월 19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안도걸 국회의원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싸고 논쟁을 벌인 바 있다. 이처럼 정책 결정권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규제 체계 마련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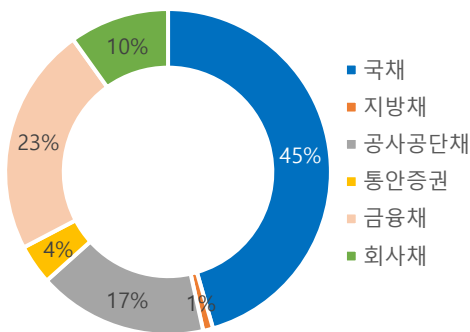
[자료 08]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입장

구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안도걸 국회의원
원화 스테이블코인 필요성 및 시급성	점진적인 도입 필요	빠른도입 필요
발행 주체와 방식	은행 중심의 접근	비은행 기관 참여 필수
통화정책 영향	통화 정책의 유효성 문제 가능성	통화정책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임
자본 자유화 및 외환시장 영향	악용 기회 가능성	스테이블코인이 투기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

출처 :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8/19)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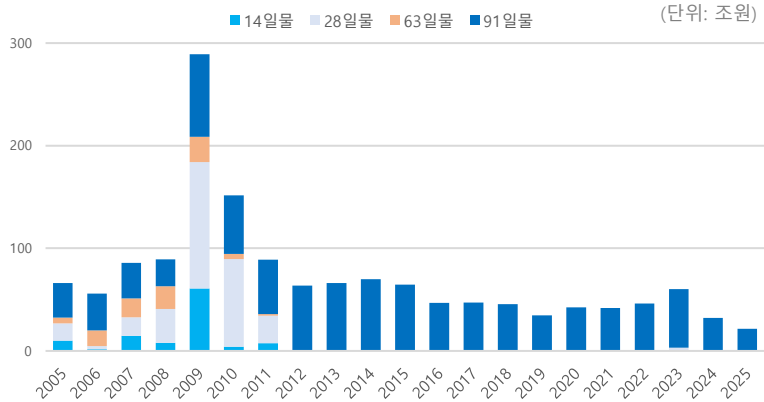
준비금 규정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단기 국채 위주로 설정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 국고채는 2년부터 50년 만기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발행되지만, 미국과 달리 1년 이하 단기 국채는 정례적으로 발행되지 않는다. 재정증권은 1개월에서 3개월(28일, 63일, 91일 등) 만기로 발행되지만, 이는 국가 재정 집행 과정에서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성격이 강해 스테이블코인 준비금 운용 자산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통안채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준비금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다만 스테이블코인의 페깅 가치 유지를 위해 91일~92일 만기 중심으로 편중된 현 구조는 보완이 필요하다. 과거에는 14일, 28일 등 다양한 만기의 단기 통안채가 발행된 사례가 있었던 만큼, 만기 구성을 다양화한다면 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자료 09] 한국 채권시장 구조



출처 : 한국은행

[자료 10] 3개월 이하 통안채 발행 (과거~현재)



출처 :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

원
스
테
이
블
코
인
은
결
제
절
차
단
축
과
수
수
료
절
감
효
과
가
기
대
되
지
만,
실
제
시
장
안
착
에
는
구
조
적
한
계
와
난
항
이
예
상

4.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활용

국내 결제 시장의 경우 기존 PG/VAN사, 카드 네트워크, 은행, 카드 발행사 등 복잡한 중간 정산/여신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는 이러한 절차를 모두 생략이 가능하다. 이는 카드 수수료 수익의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수수료 절감 효과에 주목한 월마트, 아마존 등 해외 업체는 자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언급하는 등 카드 수수료 절감을 통해 순이익 성장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국제 송금에서도 효과가 크다. 국제 송금에서는 국경 간 자금 이전에 최대 2일 이상이 소요되나,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하면 수초~수분 내 처리가 가능하다. BIS는 송금 비용을 주요 채택 요인으로 보며,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수단을 서서히 대체할 것으로 전망한다.

[자료 11] 결제 결제수단과 스테이블코인 간 전송수수료 및 전송시간 비교

		전송수수료	전송시간
기존 결제수단		\$12.52	1시간 이내: 50.6% 1영업일 이내: 92%
스테이블코인	USDT	\$0.3~\$2.5	5분 이내
	USDC	\$0.2~\$0.3	1분 이내

출처 : World Bank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장점은 이론적으로 타당하나, 실제 시장 적용 과정에서는 여러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다. 첫째, 비용 절감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예컨대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 결제 사업을 운영 중인 Stripe는 결제 수수료를 1.5%로 있는데, 이는 기존 카드 결제 수수료(2~4%)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정률 수수료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비용을 완전히 제거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둘째, 블록체인 거래 특성상 결제 취소, 이중 결제, 전송 오류 등이 발생했을 때 사후 처리가 복잡하며, 사용자 입장에서 다양한 제휴 혜택을 제공하는 기존 간편결제 서비스에 비해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선택할 유인이 부족하다. 따라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결제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까지는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자료 12] Stripe 부과 수수료 1.5%, 수수료 절감 실효성 의문

Stablecoin payments Public preview

Let your customers pay with crypto that settle as fiat in your Stripe balance.

[Ask about this page](#) | [Copy for LLM](#) | [View as Markdown](#)

You can accept stablecoin payments that settle as fiat in your Stripe balance. You can accept USDC payments on Ethereum, Solana, and Polygon without holding or converting crypto to fiat yourself. We charge 1.5% of the transaction amount (in USD).

AVAILABILITY

While customers can use crypto as a payment method globally, Pay with Crypto is currently only available to a limited set of US businesses.

출처 : Stripe

5. 결론

스테이블코인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빠르게 제도권에 편입되며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드라이브와 함께 달러 패권 강화 전략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은 미국채 단기물 수요 확대를 불러오며 국채시장과 통화정책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 역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도입 필요성이 점차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제도적·규제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현실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특히 준비금 운용 자산의 범위 설정은 핵심 쟁점으로, 미국이 단기 국채를 법제화한 것처럼 한국은 통안채 중심의 운용이 유력하다. 다만 현행 통안채 발행 구조는 만기 다변성이 부족하여,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적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발행 만기의 다양화와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활용 측면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결제·송금 시장에서 일정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카드 네트워크 및 기존 결제 인프라 대비 수수료 절감 효과와 효율성 제고라는 장점을 지니지만, 실제로 안정적으로 결제 시장에 정착하기까지는 제도적 불확실성과 인프라 한계로 인해 난항이 예상된다.

결국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도입은 단순한 디지털 자산 산업의 확대를 넘어, 국내 금융시스템 효율성과 원화의 국제적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다만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 준비금 운용체계 개선, 결제 인프라와의 조화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도입은 중장기적 과제로 추진되되, 신중한 제도 설계와 시장 인프라 정비가 병행될 때 그 진정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